

1.글로벌 채권

- * <뉴욕 채권> 국채가격은 유럽중앙은행(ECB) Fed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보험권에서 혼조
- * 국채가격은 8일 예정된 ECB의 통화정책 결정과 14일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거래자들이 큰 움직임을 자제해 보험권... 전일에도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 부결에 변동성이 크지 않았음
- * 국채가, 오후 들어서도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를 지속

[미국]

2y	1.11%	(-0.6bp)
5y	1.83%	(-1.2bp)
10y	2.39%	(-0.5bp)
30y	3.08%	(+1.5bp)

[기타 10Y물]

영국	1.41%	(+1.3bp)
독일	0.37%	(+4.0bp)
프랑스	0.80%	(+1.4bp)
이탈리아	1.94%	(-4.1bp)
스페인	1.49%	(-6.1bp)
그리스	6.61%	(+19.7bp)

2.글로벌 증시

- * <뉴욕 마감> 통신과 금융업종 강세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... 다우존스산업평균 지수는 이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
- * 3분기 비농업 생산성, 연율 3.1%(계절 조정치) 증가해 잠정치와 같았음...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
3분기 단위노동 비용은 전 분기와 비교해 0.7% 증가해 잠정 집계치인 0.3% 상회
- * 10월 신규 공장주문도 4개월 연속 상승하며 제조업이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재확인
- 10월 미국의 공장 신규주문은 전달에 비해 2.7%... 시장 예상치 2.6%를 웃도는 수준
- * 미 10월 무역수지 적자폭 예상보다 크게 확대
- 10월 무역수지 적자, 직전월보다 17.8% 증가한 426억달러를 기록
- * <유럽 마감> 유틸리티와 금융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이틀째 상승
- 이탈리아 증시는 4.2% 급등... 마테오 렌치 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이 승인될 때까지 사임을 미루기로 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

* <상하이 마감> 당국의 규제 우려가 이를 연속 악재로 작용하며 혼조세로 마감
 - 보험감독관리위원회(보감회)가 전해인수보험의 신규 보험 상품 신고를 3개월간 금지하는 등 단속에 나서면서 투자 심리 위축

* <도쿄 마감> 이탈리아 국민투표 부결에 대한 충격을 딛고 간밤 뉴욕증시가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자 투자 심리가 회복돼 일본증시도 상승세로 마감

DOW30	19251.78	(+0.18%)
NASDAQ	5233.00	(+0.45%)
S&P500	2212.23	(+0.34%)
NIKKEI225	18360.54	(+0.47%)
SHANGHAI	3199.65	(-0.16%)
FTSE100	6779.84	(+0.49%)
DAX30	10775.32	(+0.85%)
CAC40	4631.94	(+1.26%)

3.글로벌 환시

* 달러화, 오는 8일 유럽중앙은행(ECB)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강보합권

유로/달러	1.0721	(-0.0039)
유로/엔	122.25	(-0.17)
달러/엔	114.02	(+0.27)
달러/위안	6.8575	(-0.0295)
파운드/달러	1.2674	(-0.0053)
NDF	1171.20 / 1171.70원...보합	

4.글로벌 상품

* <국제 유가> 원유 생산량이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닷새 만에 하락

* <국제 금값>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달러화 강세로 하락

WTI	50.93	(-1.7%)
COMEX금	1170.10	(-0.5%)

5. 전일 국내 지표

코스피	1989.86	(+1.35%)
코스닥	581.35	(+1.08%)
원/달러	1171.40	(-3.20)
KTB	109.24	(-0.06)

LKTB 124.80 (-0.29)

6. 전일 국내 주요 금리

* 국고채 금리, 상승 마감. 장중 미국&일본 국채금리가 강세폭을 줄이거나 약세를 보인데 따른 부담 반영. 주식시장이 1% 넘는 상승을 보인 것도 약세 요인.

CD(91d) 1.5400% (0.00bp)

[국고채]

1y	1.5950%	(+1.00bp)
3y	1.7370%	(+1.70bp)
5y	1.9300%	(+1.50bp)
10y	2.2000%	(+1.80bp)
20y	2.2000%	(+1.30bp)
30y	2.1920%	(+0.70bp)
50y	2.1870%	(+0.70bp)

[통안채]

1y	1.5940%	(+1.10bp)
2y	1.7200%	(+1.80bp)

7. 본드 스왑 스프레드

1Y	-8.15bp	(-0.60bp)
2Y	-17.00bp	(-0.55bp)
3Y	-14.20bp	(-0.20bp)
5Y	-24.50bp	(+0.50bp)
10Y	-35.50bp	(+0.70bp)

8. IRS/CRS 동향

* IRS, 국채 선물 약세 영향 등으로 소폭 상승 마감.

* CRS, 부채스왑 영향으로 상승 마감.

*IRS 금리

1Y 1.5125% (+0.50bp)

2Y	1.5500%	(+1.25bp)
3Y	1.5950%	(+1.50bp)
5Y	1.6850%	(+2.00bp)
7Y	1.7475%	(+2.00bp)
10Y	1.8450%	(+2.50bp)

1*2Y	3.75	(+0.75bp)
2*3Y	4.50	(+0.25bp)
2*5Y	13.50	(+0.75bp)
3*5Y	9.00	(+0.50bp)
5*7Y	6.25	(0.00bp)
5*10Y	16.00	(+0.50bp)

*CRS 금리

1Y	1.0550%	(+3.50bp)
2Y	1.1400%	(+4.50bp)
3Y	1.2100%	(+6.00bp)
5Y	1.2600%	(+6.00bp)
7Y	1.2700%	(+6.00bp)
10Y	1.2600%	(+5.50bp)

9. 주요뉴스

[해외]

* 이탈리아 부실은행인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(BMPS), 민간구제 난항... 정부 구제금융이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 <파이낸셜타임스>

- 이탈리아 정치 불안으로 인해 BMPS가 카타르로부터 10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받기 더 어려워졌으며 만약 BMPS의 민간 구제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이탈리아 은행권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전망

*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, 전일대비 0.43% 절상...반년 만에 최대폭

- 최근 달러 강세가 완만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

* 美 연준 고용시장환경지수(LMCI), 석달 연속 상승세...11월 LMCI 1.5 포인트 상승

- LMCI는 실업률과 고용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 19개 고용 관련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지수로 LMCI가 상승했다면 고용시장 환경이 좋아졌다는 의미로, 상승 폭이 클수록 개선 정도가 크다고 해석

* 호주 중앙은행, 기준금리 1.5%로 4개월 연속 동결...글로벌 상품 가격이 반등하면서 호주의 경제 성장세가 가속화하고 실업률도 하락세를 보인 것이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설명

[국내]

* 다시 벌어지는 여전채 스프레드...강세 지속엔 한계

- 트럼프 당선 이후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동안 여전채가 상대적으로 강세였지만, 추가 강세엔 한계를 노출하는 상황
- 트럼프 당선 이후 여전채의 상대적 강세가 국고채 시장의 극심한 불안 탓에 상대적으로 여전채가 소외된 결과
- 연말 북클로징 등을 감안하면 약세 흐름 이어질 수 있어

* 이주열 한은 총재, 탄핵정국에 해외 출장 전격 취소

* 테마주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...소문만 내도 과징금 3천만원

-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테마주와 관련된 호재성 소문을 퍼뜨리는 것만으로도 과징금 처벌
- 실제 매매로 이익을 보지 않더라도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항에 적용되는 등 테마주 단속이 보다 강해질 전망

금일 예정 지표

[인도 / 폴란드/ 캐나다 기준금리 결정]

호주-3분기 GDP(QoQ) (예상:0.3%, 이전:0.5%)

독일-10월 산업생산(MoM) (예상:0.8%, 이전:-1.8%)

영국-10월 산업생산(MoM) (예상:0.2%, 이전:-0.4%)

-10월 제조업생산(MoM) (예상:0.2%, 이전:0.6%)

미국-10월 JOLTs 구직인수 (예상:5.500M, 이전:5.486M)

-원유재고 (이전:-0.884M)